

사회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진화 발전해야 한다

모든 동식물들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진화하게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인 자연의 선택이라고 찰스 다윈은 말했다. 어떤 사회나 제도 및 조직 또한 살아남거나 발전하지 않고서는 경쟁자들을 이길 수 없음으로 부단한 노력과 변신의 진화를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의 발명이나 사회발전의 틀들은 어떤 변화로 진화해 나아갈 것인지 모색해 보겠다.



정형화는 우리의 적

기업은 특성상 커다란 자본에 의해 합병을 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성장 발전해야 하는데 하나의 순수한 아이템이나 기술가지고는 성장속도가 느리고 자칫하다가는 생명을 다하여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 어떤 법칙이나 이론도 영원 불멸한 것은 없고 항시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변화되거나 변화의 속성을 모두 포함하는 이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사회의 흐름이, 다양성이 실종되고 정형화 또는 이분화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천안함 사건으로 발생한 이념분쟁은 남과 북의 충돌에서 남한 내의 보수와 진보로 확대되어 21세기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다시 20세기 이념분쟁 시대로 회귀한 느낌이다.

또한 급속한 노령화 시대가 오면서 기존 틀을 고수하는 노인층의 증가는 수십 년 동안 간직해온 자기의 문화를 고수하고 싶은 정신적인 관성(고정관념) 때문에 쉽사리 바뀌지 않고, 시대의 중심축에서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청년층은 시간이 갈수록 수적으로 줄어들 뿐 아니라 청년 실업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여 자기 목소리를 키울 수 없어서 자칫 사회 전체가 획일화 보수화의 길로 가지 않을까 의심스럽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선진국에서 이미 나타났던 사례였고 우리나라는 급속한 결혼 연령증가 및 노령화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다출산을 장려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청년층의 증가는 20년 이후 나타날 현상이고 늘어나고 있는 노령층의 증가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어서 백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는 방법이 있다. 모두 자기 자신만을 강조하지 말고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주는 것이다.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공멸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진화의 방법이다.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바탕 아래서 다양한 사고가 토양을 찾아 발아를 하여 성장하여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고 또한 다양한 발명을 하여야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는 다양성의 상징

샌프란시스코는 빼어난 경치, 온화한 기후, 음악, 예술 등 다양한 민족이 함께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항시 선두 그룹에 있는 도시다. Semicon West 행사 참여나 산호세 방문 등 미국 서부를 갈 때면 항시 들렸던 도시였고 동부의 워싱턴 DC 다음으로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기도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곳을 여행했던 곳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양한 민족과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충돌 없이 미국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샌프란시스코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던 원인을 찾으려 며칠을 구석구석 뒤졌다.

평화와 사랑을 주창했던 히피족들의 근거지가 샌프란시스코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거리 풍경에서 찾을 수 있었다. 거리 곳곳에 다양하게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연주하고 현란한 몸놀림으로 춤을 추어도 아무런 저항감 없이 응원의 박수와 달리 지폐를 내놓고 가는 행인들의 모습에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있지만 서로 함께 공존하는 방법이 무엇가를 알았다.

차이타운의 기쁨이 많은 중국풍 음식냄새와 중앙 아메리카 히스패닉계의 초원이나 사막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멕시코 음식과 여유와 낭만 그리고 고급스러운 바다생선을 주 메뉴로 하는 유럽식 이탈리아 식당이 모두 공존하면서 번창하고 있는 모습에서 평화와 사랑을 갈망했던 샌프란시스코 문화가 미국에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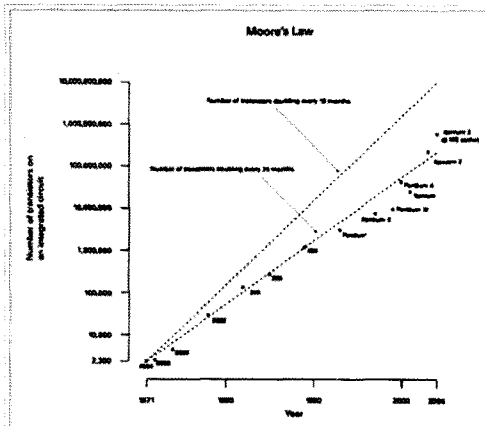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다.

단일 민족에서 다 민족 사상으로

우리는 5천년을 살아온 백의 단일 민족이라고 어린 시절부터 교육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밝혀지고 있는 요동지역에서의 요하문명을 보면 기원전 6천년 이전에 이미 농경사회를 표방한 집단 거주지가 발굴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많은 부분에서 수정되어야 하고, 우리가 신화라고 알고 있는 고조선 사회가 역사로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힘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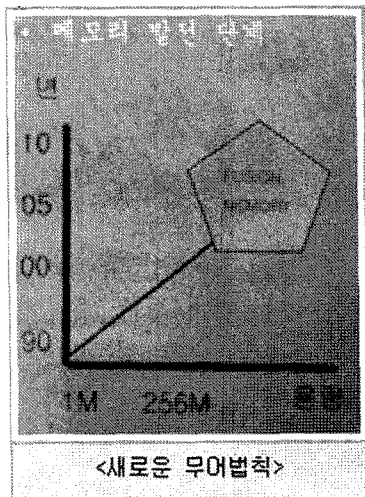
그리고 DNA 검사를 통한 민족의 유래를 연구해 보면 북방계 DNA와 남방계 DNA가 공존하는 형태로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많은 반박 증거자료에 의해서 수용할 수 없는 이론이 되어 버린다. 또한 두개골의 형상을 비교 연구해보면 남방계 DNA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거주했던 주

거지역의 무덤에서 발굴된 두개골은 얼굴 정면이 좁고 옆면이 넓은 형태의 유럽이나 인도인 계통의 두개골 형태가 나오고, 북방계 DNA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거주했던 주거지역의 무덤에서 발굴된 두개골은 앞면이 넓고 옆면이 좁은 등글넓적한 형태의 두개골이 나오는 등 DNA뿐만 아니라 두개골 형태 등 모든 것이 한반도에 남아있는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에 근원을 두어서 발전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다양한 민족이 수만 년 전에 여러 계통으로 한반도에 흘러 들어와 정착하면서 자연환경에 변화 진화 적응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텔 프로세서(점)의 트랜지스터 집적수의 성장과 무어의 법칙 (위쪽 줄=18개월,아래쪽 줄=24개월)

<무어가 발표한 논문 주요도면>



<새로운 무어법칙>

<필자가 예측한 반도체 발전단계>

과학 기술 및 사회발전 다양성을 인정해야

과학 또는 사회발전을 연구 분석해 보면 시대에 따라서 나름대로 당시의 환경에 맞는 이론이나 법칙이 나와서 시대를 풍미하다가 사라지곤 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자랑하는 반도체 기술은 1965년 인텔의 공동 창업자인 무어가 발표한 논문에서 18개월 마다 CPU 칩에서 4배의 트랜지스터 집적수가 변화되는 형태로 발전할거라고 하여 한동안 큰 각광을 받았다.

2002년 우리나라의 황찬규 삼성전자 사장이 샌프란시스코 매리어트 호텔에서 있는 국제반도체회로학술대회(ISSCC)에서 황의 법칙을 발표했다. 18개월에서 6개월을 앞당겨 12개월만에 4배의 메모리 용량이 증가하는 “신 메모리 성장론”을 발표, 몇 년 동안 정설이 된 듯하다가 잠잠해졌다. 황의 법칙이 발표되는 시점에 필자가 예측한 새로운 무어의 법칙은 다양한 발전의 축을 갖다 보니 5각형 형태의 모양이 형성되는 “퓨전메모리 법칙”을 발명칼럼에 기고한적이 있다. 당시 영향력이 미진하여 잊혀진 새로운 무어의 법칙이 되었다. 지금은 황의 법칙이 영향력이 없어지고 새로운 퓨전메모리의 법칙이 빛을 발해서, 기능성 특성과 메모리 용량성 특성이 함께 하나의 디바이스

에서 발전하려면 메모리 용량은 시간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는 다양한 성장의 축으로 반도체가 발전해야만 21세기 계속해서 세계에서 반도체의 영향력을 유지하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역사나 사회의 발전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발전되어짐을 보았다. 새로운 사상이나 사회운동이 초창기에는 이단아로 낙인 찍혀 빛을 보지 못하다가 세월이 흘러서 가치를 인정받는 사례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찾을 수 있다. 인상주의 화풍을 만들었던 모네의 그림을 보고 그동안의 전통적인 주제나 기교에 얽매이지 않아 참 인상적이다(impressive) 라는 비평가 루이 로로이가 쓴 비판 기고문에서 유래되어서 인상파가 세계에 알려졌다는 이야기는 전통의 가치관을 깨고 새로운 사상이 잉태하기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인재의 육성이나 발굴을 하기 위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력 교육을 늘리고 창의적 인재를 찾겠다는 소리가 요란하다. 창의력의 근간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발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의 경직성은 창의성을 말살하는 우리들의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다. 말은 창의적 인재를 발굴한다고 하면서 사회는 이분법적 이념화가 된다면 모순이다. 날로 커지고 있는 국가의 부채 및 청년 실업과 노령화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 세계적인 제품을 세상에 내놓아서 돈을 벌어오고 직업을 창출해야만 해결된다.

흑 고양이이다 백 고양이이다 싸움할 필요 없이 하나의 화폭에 커다란 나무 가지에 참새가 여섯 마리가 평화롭게 놀고 있고 색이 다른 두 고양이가 서로를 마주보면서 사랑과 평화를 보여주는 우리의 변상벽의 “묘작도” 같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광장의 파란 잔디 위에서 참새 집단과 고양이 집단이 서로 엉키어 싸우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파란 잔디에 백 고양이 집단 팀과 흑 고양이 집단 팀이 운동장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때 황 고양이가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기념 사진을 찍겠다고 파란 잔디 위에서 사진을 찍으며 전광석화 같은 깨우침을 얻었던 먼 옛날 샌프란시스코 공원에서의 추억이 묘사되어 경직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모든 사람이 느끼는 공감대가 되어서 다양성을 서로 인정해주면서 공존하는 국가가 되어서 21세기 찬란히 피워나는 우리 민족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뿐이다. **한국발명진흥회**



〈변상벽의 묘작도〉



박진준

21세기 특허법률사무소 기업기술 가치평가(사)한
삼성전자 반도체 IP팀 수석연구원
특허법 및 창의력 개발 강사
KAIST EMDEC 신제품 개발 강사
창의력 이야기 외 다수 저술인